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으로 일상이 행복한 전주'

전주시 대중교통국, 교통인프라 확충·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5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대중교통 혁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집중기로 했다.

전주시 대중교통국은 18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으로, 일상이 행복한 전주'를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대 추진전략은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주차난 해소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고객 감동을 위한 차량 행정민원 서비스 향상 등이다.

먼저 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편의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린대로(여의광장 사거리~한옥마을 9.5km) 구간을 중심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갈 계획이다. BRT는 오는 2026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함께 노후화된 전주역사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전주역사 개선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증축역사 우측 공사와 선상연결 통로 공사를 착수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선상연결통로와 후면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장동 화물자동차



전주시 대중교통국은 18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으로, 일상이 행복한 전주'를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이달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도심 내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남부권에 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한다. 그 외 교통안전센터 조성과 승강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요 거점별로 노외주차장(3개소 112면)과 스마트 노상주차장(3개소 296면) 그리고 대규모 주차타워(3개소, 2,596면) 등 총 9개소 3,00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지원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지원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통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주차 차량으로 주차 회전을 저하된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료화를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통합플랫

폼 운영을 통해 지능형 단속 및 민원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불법주정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세 번째로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 교통비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도내 처음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50대)를 도입하고 콜택시·임차택시 증차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확대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한다. 또, 선택의 폭을 넓힌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으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전주·완주 시간선제 3단계(봉동·용진 방면)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수요에 대응한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안전하고 친절한 마을버스와 모심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지난해 출시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택시 호출시스템인 전주시랑콜과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K-패스 지원사업 등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 번째로, 시는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한다.

올해 친환경 대중교통 구축을 위해 수소버스 65대, 전기버스 8대 등 총 73대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및 전기자전거 구입을 지원하고 자전거도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이용 시설을 확대·정비한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문 문제가 제기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방치리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리보드 안전지킴이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옐로리벳 설치 및 통화로 개설,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더욱 촘촘한 교통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올해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착공, 전주역사 개선사업 가속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전주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해"라며 "시민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으로, 일상이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류협회 소속 아이더팀은 18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면서 총 1,84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선물꾸러미 100박스와 의류 698점을 기부했다.

취약계층 위한 따뜻한 온기 전달

전북의류협회, 1840만원 상당 선물꾸러미·의류 기탁

전북의류협회 소속 아이더팀은 18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면서 총 1,84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선물꾸러미 100박스와 의류 698점을 기부했다.

전북의류협회는 의류유통시장의 발전과 의류 종사자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에 설립됐다. 이번 선물꾸러미는 협회 소속 아이더팀(평화점, 송천점, 서천점, 모다아울렛 전주점 제점)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기탁된 선물꾸러미에는 햇반과 라면, 물티슈 등의 생필품이 담겨있으며 매장에서 판매되는 경

랑패딩 점퍼와 베스트, 티셔츠 등 추운 날씨에 필요한 방한 의류도 포함됐다.

기탁받은 선물꾸러미 및 의류를 협회 회원들의 소중한 의사에 따라 취약계층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북의류협회 박상식 대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나눔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8일 전주동물원을 찾아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전주동물원 현장 점검 나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운철)가 18일 전주동물원을 찾아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김운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새로 입식한 코끼리의 환경 적응 상황과 겨울철 동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또 의원들은 봄철 동물원 관람객들

이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각종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 및 시급한 보수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전주동물원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 나도록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지환경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민·관·학 협력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집수리 완료·입주식 개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주택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시켰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18일 완산구에 있는 독거 노인 주택에 대해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집수리를 완료하고 협력 기관과 함께 입주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대상인 독거노인 1인 가구를 주거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통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18일 완산구에 있는 독거 노인 주택에 대해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집수리를 완료하고 협력 기관과 함께 입주식을 개최했다.

사례를 발굴했다. 주거환경개선이 진행된 독거 노인 거주 주택은 건축된

지 100년이 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안전성, 쾌적

성 등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화장실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생활하기 매우 불편하고, 주방 등 주거생활 공간 개선이 전반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센터는 △전북대학교(주거환경학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시 해피하우스 △노송동 주민센터 △더대우(단소난방업체) △에코넥스온(태양광 업체) 등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 및 재능 지원과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의 공간디자인 설계 재능 봉사 참여로, 주택의 내부 화장실·주방 마련, 단열공사, 단차체제, 탄소흡수 바닥방 및 태양광 설치, 노후 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협력·지원받았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란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